

성폭력 수사에 있어 이차피해 과정: 남성 경찰관을 중심으로

이명신* · 양난미**

초 록

본 연구는 남성 경찰관의 성폭력 편견과 피해자에 대한 태도(비난과 의심), 수사과정의 어려움(증거부족, 동기부족), 이차피해유발 수사행동(저항·동의, 정황, 피해자 특성)의 정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러한 변인들이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차피해 유발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남지역에서 성폭력수사 경험이 있는 남성 경찰관 182명을 대상으로 빈도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남성경찰관의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의심은 비교적 낮은 편이었으나, 피해자 비난태도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폭력 수사의 어려움은 동기부족보다는 증거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피해유발 수사행동 중에서는 정황이나 피해자특성 보다는 저항·동의를 중시하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검증 결과, 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의심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증가될수록 저항·동의를 중시하는 수사행동이 증가되며, 의심이 증가될수록 동기부족으로 인한 어려움과, 정황을 중시하는 수사행동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기부족으로 인한 수사의 어려움이 클수록 증거부족으로 인한 수사의 어려움과 정황을 중시하는 수사행동이 증가되는 반면, 증거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클수록 저항·동의를 중시하는 수사행동이 증가되었다. 저항·동의를 중시하는 수사행동이 증가될수록, 정황을 중시하는 수사행동은 증가한 반면, 피해자 특성을 중시하는 수사행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황을 중시하는 수사행동이 증가될수록, 피해자 특성을 중시하는 수사행동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차피해에 대한 경찰의 인식향상 캠페인, 경찰의 의식전환 및 전문화를 위한 교육, 이차피해 자가진단 사정도구의 개발 및 자가사정 체계구축, 성폭력 관련 법 개정,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이 제안되었다.

주제어 : 성폭력에 대한 편견, 피해자 비난, 의심, 증거 부족, 동기 부족, 이차피해유발 수사행동

* 제 1저자,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교신 저자,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I. 서론

최근 성폭력 범죄의 연이은 보도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극대화되고 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사회적 관심은 주로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 및 재범 방지에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통제(control)의 필요성이 급부상하는 데 반해, 정작 성폭력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온정(compassion)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에 대한 관심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는 듯 하다.

성폭력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성폭력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성, 성적 고결성(sexual integrity)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다른 사람을 향한 신뢰를 깨뜨리고 피해자의 정서적, 신체적 행복을 산산이 부수는 것이다(Gallivan & Bazilli, 1994, pp 6-7; Du Mont & Myhr, 2000, p1109에 재인용). 성폭력 피해자는 두려움과 불안,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 자살생각 등을 경험하며 자존감이 낮아지고, 성폭행 후 여러 해가 지나서 약물남용이나 성문제 등을 갖게 된다(Resick, 1993; Du Mont & Myhr, 2000, pp 1109-1110에 재인용). 이처럼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게 되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완화·경감시키고, 신고와 고소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1998년 ‘성폭력피해자권리헌장’이 선포된 이후¹⁾ 2003년에는 성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 8차 개정²⁾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2005년에는 형사사법

1)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중심이 되어 선포한 “성폭력피해자권리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직업, 나이, 이전의 성경험, 가해자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피해자로 인정받고 대우받을 권리, ②사건과 관련된 질문만 받을 권리, ③이전의 성경험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을 권리, ④고소시 자신의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지않고 보호받을 권리, ⑤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권리, ⑥편안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가족, 변호사, 상담원과 배석할 권리, ⑦비공개재판을 신청할 권리, ⑧가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증언하기 어려울 경우, 가해자의 퇴정을 신청할 권리, ⑨가해자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묻고 보상을 요구할 권리(조국, 2002, p202).

과정에서의 이차피해자화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명실공히 형사사법 과정에서의 이차피해자화 방지 및 피해자지원을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었다(류병관, 2006, p416).

성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이차피해자 방지를 위한 법제도가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현실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폭력 사건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³⁾, 성폭력범죄의 신고율은 실제 발생율에 비해 매우 낮아 90%이상의 피해자가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⁴⁾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신고한다 하더라도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실정이다. 2010년 강간범죄의 기소율은 42.9%였으며(「범죄백서」, 2011, p198), 2011년에는 강간범죄의 38.6%가 기소되었고, 신고된 전체 강간범죄의 10.1%만이 구속처리 되었다(「2011 범죄통계」, 2012, p232). 소수의 성폭력범죄자들만이 체포되고 기소되며 극소수만이 유죄판결을 받는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영국의 경우 성폭력범죄자의 유죄판결율은 10%미만이며, 강간범의 경우 5%에 불과하다(Lea, 2007, p496). 영국, 미국, 캐나다의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성폭력사건의 1/2에서 3/4가 경찰수사 단계에서 여과되며, 전반적으로 신고된 강간사건의 30%만이 유죄판결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Du Mont & Myhr, 2000, p1111).

이처럼 낮은 기소율과 유죄판결율은 형사사법체계를 거치는 동안 많은 성폭력 범죄사건이 소실(attrition)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폭력범죄의 상당수가 증거불충분으로 분류되어 범죄자가 기소되지 않거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음으로써, 법이 의도하는 대로(혹은 사회가 기대하는 만큼) 성폭력

2) 성폭력법 제 8차 개정(2003)의 내용: ① 13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해 촬영, 보존(제 21조의 2 신설), ② 13세미만, 장애인 수사 및 재판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 22조의 3 제 3항 신설), ③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한 신문(제 22조의 4 신설), ④ 13세 미만, 장애인, 공판기일 출석 진술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거보전 청구 가능(제 22조의 6 제 1항 후단 신설).

3) 강간은 2001년 10,446건에서 2010년 19,939건으로 증가하였고, 2002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되는 추세임(「범죄백서」, 2011, p61).

4) 성폭력범죄의 신고율은 실제 발생율의 2.2-6.1%에 불과하며(장화정, 2006, p71), 2007년 실시된 전국성폭력실태조사에서도 경찰에 신고한 비율이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승권 외, 2008: 280).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을 지켜보고 그리하여 자신의 정당함이 밝혀질 때 일종의 치유의 효과를 얻는다고 보고되고 있다.⁵⁾ 형사사법과정에서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은 채 성폭력범죄사건이 소실되는 것은 성폭력피해자가 기대하는 사회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게 또 한 번 사회에 대한 불신과 절망을 안겨주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비난과 의심의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해 성폭력으로 인한 ‘일차피해’(신체적 고통·정신적 후유증)외에 ‘이차 피해’를 겪게 될 위험에 노출된다. 형사사법체계와 접촉한 후 대다수의 성폭력피해자가 죄의식과 불신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외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는 사실(Campbell, 2006, p31)은 이러한 ‘이차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피해자가 경험하는 ‘이차피해’의 절반이상이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성대, 2009, p32). 이처럼, 가해자들은 가벼운 형량을 받거나 심지어 사면되기도 하는 반면, 성폭력피해자는 ‘이차피해’를 겪게 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다(Lea, 2007, p495).

이러한 현상은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변화되었지만, 이를 운용하고 실행하는 형사사법 담당자들의 태도와 행동이 이러한 변화를 신속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제도의 변화가 형사사법체계의 공식적 업무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형사사법관련자들이 법과 항상 일치되지 않는, 전통적인 강간통념에 입각해 일하고 있으며, 그들의 태도와 행동에 내재된 성폭력에 대한 편견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을 왜곡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Lord & Rassel, 2002, pp 156-158; 이명신과 양난미, 2011, p161에 재인용). 그 결과 수사·재판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는 보호받기보다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5) 남학생 기숙사에서 윤간당한 한 여성은 학교 내에 파다하게 퍼진 소문과 자신에게 씌워진 오명이 두려워 신분을 감추고 대인기피증, 알콜중독, 폭식증, 우울에 시달리며 살고 있었으나, 마침내 가해자들에게 실형이 언도되자, 가해자들이 유죄판결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자신의 치유에 도움이 되었고 자신의 정당함이 입증되어 후련해졌다고 훗날 인터뷰에서 털어놓음(Barnett et al., 2005: 226).

의심받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폭력피해자들은 심한 굴욕감, 죄의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이와 같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의 부정적 반응은 이미 성폭력으로 인해 ‘일차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에게 ‘이차피해’를 초래한다.

경찰은 성폭력사건 수사를 위해 맨 처음 성폭력 피해자와 접촉하면서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을 성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소 및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 대해서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경찰이 지니는 태도가 성폭력피해자를 대하는 경찰의 행동 속에 표현된다고 볼 때(Stephens & Sinden, 2000, p537; Hickman & Simpson, 2000, p610에 재인용), 경찰의 성폭력 편견과 피해자에 대해 지니고 있는 태도가 수사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되지만, 어떻게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성폭력사건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경찰이 지니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 피해자에 대한 태도는 성폭력사건의 근거충분성(founded)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하고자 하는 내용 및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이 지닌 편견,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가 성폭력 수사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경찰이 지니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 피해자 비난, 의심이 수사의 어려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피해자에 대한 비난, 의심, 그리고 수사의 어려움이 성폭력 수사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성폭력피해자에게 이차피해를 유발할 수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전환되는지, 그 과정을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피해자에 대한 태도가 수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남성경찰관에게 보다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성폭력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남성경찰관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이 지니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이에서 기인하는 피해자에 대한 태도(의심과 비난)가 성폭력사건의 근거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이 내리는 의사결정 및

수사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을 탐색해 봄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는 피해자에게 이차피해를 미칠 수 있는 경찰의 수사행동을 파악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이차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 공식기관으로서의 경찰이 그들의 책무성(accountability)을 실천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형사사법절차에서 성폭력피해자의 이차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제도의 개선책을 강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 수사시 경찰은 성폭력에 대한 편견, 피해자 비난, 의심을 어느 정도 지니는가? 둘째, 성폭력 수사시 경찰은 동기부족과 증거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어느 정도 경험하는가? 셋째, 경찰의 이차피해 유발 수사 행동(저항·동의, 정황, 피해자 특성)은 어느 정도 나타나는가? 넷째, 성폭력 수사시 경찰의 이차피해유발 수사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성폭력범죄의 형사사법처리 실태

지난 1년 동안 신고된 성폭력범죄의 형사사법 처리 실태를 살펴볼 때, 강간(38.6%)을 제외한 모든 성폭력범죄의 기소율은 높은 편이었다(51.1% ~ 100%). 신체적 상해를 포함하는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강간등상해,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준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구속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에 비해 강간과 준강간의 구속율은 모두 신고된 사건의 10%미만이였다. 또한 미성년자등간음추행과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구속율도 10%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자료는 우리나라에서는 강간 및 강제추행등 전형적 성폭력만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나, 상해를 동반한 사건만이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1〉 2011년 성폭력범죄 형사사법처리 실태

	사건발생 a	기소 b	구속 c		
	빈도	빈도	%(b/a)	빈도	%(c/a)
강간	2,150	829	38.6	212	9.8
강제추행(준)	6,290	3,709	58.9	132	2.1
준강간	605	309	51.1	52	8.6
강간등상해	436	398	91.3	222	50.9
강간치상(준)	855	716	83.7	321	37.5
강제추행치상(준)	217	190	87.6	29	13.4
강간등살인	6	6	100.0	6	100.0
미성년자등간음추행(심신미약자)	60	37	61.7	7	11.7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강간살인)	42	27	64.3	4	9.5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	2,234	1,673	74.9	352	1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 강간)	188	151	80.3	106	56.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44	110	76.4	41	28.5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준강간)	27	21	77.8	7	25.9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	391	306	78.3	107	27.4
(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등)	741	627	84.6	230	31.0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119	64	53.8	1	0.8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589	1,247	78.5	34	2.1

출처: 2011 범죄통계(2012). 범죄자 송치의견, pp 232-233.

성폭력범죄의 기소율과 구속율은 빈도를 토대로 산출하였음.

2. 성폭력에 대한 정의에 내재된 문제점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정의되는 성폭력은 협의로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전형적 성폭력으로 국한될 수 있지만, 넓게는 성희롱처럼 폭력행사가 수반되지 않는 형태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황현락, 2007, p377). 성폭력을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에 따라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성폭력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중요성을 띤다. 주로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되는 전형적인 성폭력(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기 위해, 성폭력관련 조사 및 정책수립을 주도하는 세계적 기구인 WHO(세계보건기구), 미국 사법부, 미국 질병예방및통제국(CDC)의 강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본 결과, 쿡과 동료들(Cook, S.L., Gidycz, C.A., Koss, M.P. & Murphy, M.: 202-203)는 강간의 정의는 ‘원치않는 성관계, 이를 강요한 방식, 비동의(nonconsent)의 표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쿡과 동료들(2011, p203)은 성폭력과 강간으로 분류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되었으나, 성관계를 강요한 방식(신체적 완력 또는 이에 심리적 강요까지 포함)에 대해서는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동의의 결여(동의할 능력이 없음, 또는 거절할 능력이 없음을 제공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였다.⁶⁾ 강압(원치않는, 강요된, 비자발적)에 의한 성관계, 비동의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음으로써, 강압의 입증과 비동의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경찰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3. “진짜 강간”, “진짜 희생자”의 강간신화: 성폭력에 대한 편견, 피해자 비난, 의심

성폭력 사건 수사에 임하는 경찰이 맨 처음 하게 되는 의사결정은 특정 성폭력사건이 사건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아닌지 여부이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그 사건은 사건구성요건을 충족

6) WHO와 미사법부는 동의의 결여(비동의)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Cook et al., 2011: 203).

(founded)시키는 사건으로 간주된다(Maquire, 2009, p164). 성폭력사건을 충족시키는 수사정보는 피해자의 폭행 이전의 행동, 폭행에 저항했는지, 신고를 곧바로 했는지, 폭행의 물리적 증거를 모아놓았는지, 증인의 증언 등을 포함한다(Du Mont & Myhr, 2000, p1117). 그러나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강제성, 저항, 피해자의 동의여부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

캐나다에서는 법 개정 이후 가해자가 신체적 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를 의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완력의 사용이 유죄판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Du Mont & Myhr, 2000, p1129). 이처럼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신체적 완력의 사용, 이에 따르는 상해여부는 비동위의 증거로 간주되어 경찰 수사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아는 관계에서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옷이 찢기거나, 신체적 상해를 입는 등의 강력한 저항의 흔적이 없으면 “합의하의 성관계(consensual sex)”로 간주되기 쉽다(Renner, 2002, p144). 이러한 이유에서 가해자가 아는 사람일 경우 신체적 상해여부는 피해자의 저항·동의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된다(이명신과 양난미, 2011, p166). 가해자와 아는 관계일 경우, 그리고 신체적 상해나 강력한 저항의 증거가 없다면, 성폭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이 지배적이다(Renner, 2002, p144).

이와 같은 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경찰로 하여금 수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진실성을 의심하거나(Lord & Rassel, 2002, p165),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관계일 경우 어느 정도는 피해자가 스스로 불행을 자초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Renner, 2002, p1390).

성폭력, 강간에 대한 정의에 내재된 문제점, 즉 저항·동의여부에 대한 모호성으로 말미암아,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저항과 상해여부, 합의하의 성관계라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고수하면서 증거위주의 수사에 집착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증거외적 요인, 즉 피해자의 특성이나 성폭력이 발생한 정황 등에 집중하게 된다. 이러한 성폭력사건을 대하는 경찰의 반응은 경찰문화 내에 깊이 자리잡은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반영하는 것으로(Jordan, 2008, p702),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 강간신화에 토대를 두고 있다. 강간신화(rape myth)는 여성은 강간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 옷차림이 성적요구를 불러일으키거나 술집에 종종 혼자가는 여성은 강간을 당할 만하다, 여성의 부적절하거나 위험한 행동이 강간을 불러일으킨다 등 피해자를 비난하고 강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거나(Du Mont & Myhr, 2000, p1110; Frese, Moya, & Megias, 2004, p145), 강간은 낯선 사람에 의해 우발적으로 행해지고, 여성이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는 등 저항과 비동의를 강조하는 사회적 통념을 담고 있다.(신현기와 이상열, 2006, pp 256-257). 이러한 강간신화를 토대로 “낯선 사람에 의한, 신체적 완력 또는 무기를 사용한, 신체적 상해를 포함한 성폭력”은 “진짜 강간(real rape)”으로 받아들여지며(Chen & Ullman, 2010, p275), “낯선 사람에 의해 강간 당한, 저항하는 동안 신체적 상해를 입은, 젊고, 도덕적으로 고결한, 성관계가 난잡하지 않고 음주 및 약물사용 등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 여성”은 “진짜 피해자(real victim)”로 묘사된다(Du Mont, Miller & Myhr, 2003, pp 469-470).

오로지 좋은 여성만이 “진짜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편견은 피해자의 완벽성을 중시하며, 가치있는 희생자와 가치없는 희생자를 판단하는데 주의를 집중되게 만든다(Jordan, 2008, p699). “진짜 희생자”의 전형적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경찰은 성폭력피해를 신고한 피해자가 진실로 상처를 입었고 비난할 수 없는 인물인가를 기준으로 수사를 시작할 것인지 그 여부를 결정한다(Edward & Macleod, 1999; Maier, 2008, p788에 재인용). 만일 “진짜 희생자”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여성이 강간당하는 동안 무기가 사용되지 않았다면, 아는 사람에 의해 강간 당했다면, 곧바로 신고하지 못했다면), 피해여성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성폭력피해 사실의 신빙성에 대해 의심받게 되며(Maier, 2008, p788), 강간에 책임이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경험한 바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때론 피해자가 의심받고, 부정적 고정관념(stereotype)을 토대로 심판받으며, 심지어 강간을 자초하는 행동 및 옷차림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Jordan, 2008, p702). 강간신화가 경찰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강간통념이 높은 경우,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사정여부, 피해자의 저항정도, 사건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성폭력사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외적 요인에 치중하며, 이차피해 유발 질문을 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장미정과 조은경, 2004, pp 133-134).

이처럼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인 강간신화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형성하며, 그 결과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심받고 비난을 받게 하며, 수사과정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4. 수사의 어려움: 동기 부족, 증거 부족

1) 동기 부족

성폭력에 대한 편견이 높을수록, 경찰은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의심하게 되며, 그 결과 성폭력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화된다. “진짜 강간”과 “진짜 피해자”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보여질 때 경찰은 성폭력피해자를 더욱 불신하고 비난하게 된다. 이러한 경찰의 행동은 여성이 강간당했다고 거짓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에서 나온다. 이처럼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심과 비난)은 경찰이 성폭력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동기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성폭력 수사를 회피하거나 소극적 태도로 수사에 임하게 함으로써 완벽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험적 연구들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확증적 증거가 없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거나 특히 피해자의 신빙성이 의심될 때, 실제로 경찰이 가해자를 체포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Chen & Ullman, 2010, p263). 이처럼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피해여성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때문에 경찰이 완벽한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Lord & Rassel, 2002, p165), 그 결과 성폭력 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한다(Hodgson, 2002, p174). 더군다나 성폭력사건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이와 같은 편견과 선입견은 경찰로 하여금 수사과정에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증거외적 요인(피해자 특성, 정황 등)에 치중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가 이차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증대된다.

2) 증거 부족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성폭력범죄가 대부분 은밀한 장소에서 당사자들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사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입증하기 상당히 어려운 범죄이기 때문이다(황정익, 2007, p421).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신체적 완력의 사용, 신체적 상해 등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증거요인(evidentiary factor)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나, 저항과 합의에 대한 근거가 부족할 경우, 증거외적 요인(피해자 특성, 정황 등)을 찾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성관계에 대한 동의의 모호성이 증가될수록 경찰수사과정에서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과 연관된 요인(이전의 신체적 접촉, 자발적으로 가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 등) 또는 상황적 특성(저항의 결여, 음주, 자극적 옷차림등)을 고려하는 경향이 증가된다(Johnson & Russ, 1989; Frese, Moya & Megias, 2004, p146에 재인용). 성폭력사건의 근거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얼마나 수집해야 하는지는 강간당한 여성에 대한 경찰의 인식에 전적으로 달려있다(Du Mont & Myhr, 2000, p1131).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피해자에 대한 태도(비난, 의심)는 성폭력사건의 근거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이 수집하는 정보, 수사의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수집하는 정보는 폭행의 증거, 상해 등 증거요인뿐 아니라 피해자 특성 등의 증거외적 요인이 뒤섞이게 된다(Du Mont & Myhr, 2000, p1131). 그러나, 성폭력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증거외적 요인 또는 피해자관련 특성은 수사 및 기소과정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증거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Barnett et al., 2005, p246).

증거확보가 어려울수록, 그리하여 피해자의 저항과 상해여부, 합의하의 성관계라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고수할수록, 경찰은 성폭력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특성(성관계 경험, 품행 등)을 들추어내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피해여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지닐수록, 경찰은 성폭력

수사와 무관한, 피해여성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질문을 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의심 속에 피해경험 자체를 부인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폭력피해자는 형사사법체계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게 되며 두 번 희생자가 된다.

5. 이차 피해

1) 성폭력피해자의 이차피해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리고 성폭력사건의 수사를 위해 형사사법체계의 공식적 절차를 거치는 것은 성폭력피해 여성을 다시 한 번 희생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Kaukinin, & DeMaris, 2009, p1349). 성폭력피해자는 경찰과 접촉하는 동안 고소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취하고 불신하거나 마치 그들을 검문하는 듯한 태도로 인해, 그들이 이미 당한 성폭력사건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는 폭력을 반복해서 경험한다(Jordan, 2008, pp 702-703). 캠벨과 동료들(2001)과 캠벨과 라자(Campbell, R. & Raja, S., 2005)는 성폭력피해자들이 형사사법체계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희생화를 다시 경험하게 될 수도 있으며, 많은 피해자가 형사사법과정을 거치는 동안 죄의식과 불안에 시달리며, 타인에 대한 불신과 우울을 경험하게 되고 외부에 도움을 청하기를 꺼려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Campbell, 2006, p31에 재인용). 신고를 하여도 경찰이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수사지연 및 사건처리를 회피하거나(곽대경과 곽영길, 2006, pp 280-283), 실제 진실발견이라는 미명하에 피해상황의 회상이나 재연, 또는 진술반복을 요구하거나, 사건과 관련 없는 사생활에 대해 질문,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삼는 등의 경찰의 행동으로 인해, 성폭력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정신적 고통과 수모를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류병관, 2006, pp 402-403; 조국, 2002, p195; 황현락, 2007, p388; 김용근, 2008, p107; 이명신과 양난미, 2011, p163에 재인용).

형사사법체계로부터의 낙인적 반응과 비난으로 인해 성폭력피해자가 겪게 되는 고통(Maier, 2008, p787)은 “제 2의 강간” 또는 “이차 피해”로 정의된다. 이러한 “이차피해”는 성폭력피해로 발생하는 일차피해(직접적인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외에 성폭력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회적,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성폭력상담소; 김용근, 2008, p107에 재인용). 이차피해는 피해자에게 일차적 성폭력보다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차피해는 피해자로 하여금 죄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성폭력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질문 등으로 자존감의 손상,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어 사회관계 형성에 두려움을 지니거나 성폭력피해를 극복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고 한다(이재희, 2008, p66).

한국성폭력상담소(2002)의 수사·공판 단계별 이차피해 사례분석에 의하면, 성폭력으로 인한 “이차피해”의 52.2%가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며, 수사·공판과정 이외의 경우 21.1%, 공판과정에서 11.7%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신성대, 2009, p32).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피해자가 경험하는 “이차피해”의 절반이상이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캠벨과 동료들(2001)의 연구에서도 성폭력피해자의 절반이상(52%)이 사법체계와의 접촉을 통해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aier, 2008, p787에 재인용).

2) 수사과정에서 이차피해가 유발되는 이유

경찰수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이차피해를 겪는 일이 흔히 일어난다. 그 이유는 성폭력범죄가 은밀한 장소에서 당사자들만 있는 가운데 발생하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어려운 범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시된다. 경찰은 체포가 이루어지기 전에 성폭력 사건의 사건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 때문에 성폭력피해자에게 공격적 질문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범죄에 대한 증인처럼 다루게 된다(Martin, 2005, p54; Maier, 2008, p789에 재인용). 피해자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의 대상이 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조사 받게 된다. 경찰은 성폭력사건이 검사에게 송부될 정도로 충분히 강력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경찰이 하는 질문은 피해자를 비난하기 일쑤이다(Maier, 2008, p793). 게다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때로는 피해자의 평소 행동, 평판, 과거의 성경험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기도 한다. 성폭력 수사시 경찰이 피해자의 진실성 여부를 사정하는데 치중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범죄에서도 경찰이 지속적으로 피해자 고소의 확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피해자의 정숙성 및 신뢰성을 사정하기 위해 그토록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Bove & Stermac, 2002, p206).

“강간은 피고인과 고소인 간의 역할 전도를 수반하는 유일한 범죄로. 여성 피해자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반면, 남성 피고인은 마치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 것처럼 취급되는 가운데 여성 피해자는 의사피고인이 된다.”라는 모리슨 토리(1991, pp 1058-1059)의 말처럼, 성폭력은 피해자가 비난을 받는 유일한 범죄이다(조국, 2002, p193에 재인용). 이처럼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죄인 취급하고 비난과 의심의 대상이 되는 가운데, 수사과정에서 “이차 피해자화”가 초래된다(조국, 2002, p193).

이처럼 경찰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얻어내기 위해 좀더 민감하게 대해 주기를 원하는 피해자의 욕구를 희생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경찰이 지니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피해자에 대한 견해에서 기인한다(Maier, 2008, p793). “경찰은 희생자가 진짜로 강간당했다면 지금 울고불고해야 하고, 매를 맞았어야 한다.”라는 식의 희생자의 행동과 감정표현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지니고 있다. 이런 경찰의 견해는 희생자에게 매우 상처를 주고 정말 희생을 가져올 수 있다(Maier, 2008, p793). 이처럼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반응은 성폭력 자체로부터 겪는 폐해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이차 피해”를 가져오고 피해자의 회복에 치명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Wasco, 2003, p316).

3) 이차피해를 유발하는 수사 행동

성폭력에 대한 편견,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비난하는 태도는 경찰의 수사하는 내용, 경찰의 행동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엘리스과 라이트맨

(Allison & Wrightman, 1993)은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일이 흔히 일어나며, 많은 연구들은 사건의 여부보다 책임전가와 연관된 요인들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였다(Lea, 2007, p495). 희생자의 옷차림(Whatley, 2005), 신체적 매력(McCaul et al., 1990), 이전의 성경험(성역사)(Schult and Schneider, 1991), 약물복용 정도(Stormo et al., 1997; Finch and Munro, 2005), 저항정도(Ryckman et al., 1992)와 가해자와의 관계(Bell et al., 1994)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흔히 언급되는 피해자 관련 특성이다(Lea, 2007, pp 495-496에 재인용).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것으로, 성역할 신념과 강간신화 수용도가 높은 사람의 경우 성폭력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Lea., 2007, p497). 휠드(Field, 1979, p261)는 성폭력범죄(강간)의 재판에 있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증거외적 요인이 도리어 중요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정함’을 요구한 바 있다(Lea, 2007, p496에 재인용). 그러나 20여년 간 영국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경찰정책의 수립과 그 실천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및 강간 사건의 소실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며, 강간에 대한 유죄판결율이 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휠드의 주장은 무시되고 있다(Lea, 2007, p496). 즉,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증거외적 요인이 중시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수사행동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폭력 사건 수사시 경찰은 자신이 취하는 수사행동을 “정상적인” 또는 “직업적인” 일의 일부분으로 볼 수도 있지만(Campbell, 2005),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성폭력사건의 근거충분성을 확보(build a good case)해야 하는 의무 때문에, 경찰은 성폭력피해자가 받는 고통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며, 피해자를 민감하게 대하는 능력이 저하된다(Maier, 2008, p789). 이러한 점에서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당연한 일상적(routine)”인 임무라고 생각하여 취하는 행동이 성폭력피해자에게 이차피해를 유발하는 행동인지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캠벨과 라자(1999)는 성폭력피해자가 겪는 “이차 피해(이차 희생화)”를 피해자에게 부차적인 외상을 초래하는 비난적 태도와 행동, 그리고 피해

자에 대한 서비스 실천으로 정의하였다(Campbell & Raja, 2005, p97에 재인용).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하게 되는 질문은 경찰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판에 박힌 일상적 업무이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사행동이지만, 이런 질문이나 수사행동에 직면하게 되면 성폭력피해자들은 당황하게 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Campbell & Raja, 2005, p97). 이런 이유에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이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질문이나 수사내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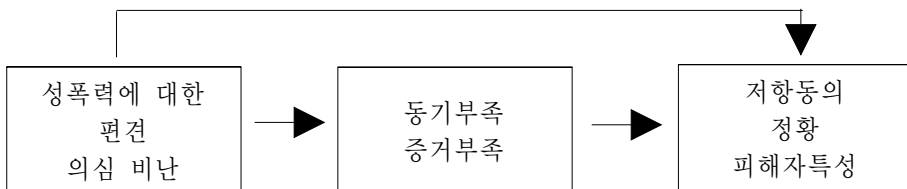
캠벨(2006, p39)은 경찰신고, 수사, 의뢰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형사사법계의 이차희생화(이차피해)행동을 조사하였다⁷⁾ ①신고 단계에서의 경찰의 부정적 반응(신고하지 말라, 신고접수를 꺼리거나 거절, 사건이 수사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말함. 신고/기소 단계를 설명해 주지 않음), ② 저항여부(가해자에게 저항했는지, 성적으로 반응했는지, 행동과 선택에 대한 질문), ③ 정황 (가해자와 왜 같이 있었는지, 이전에 관계가 있었는지), ④ 피해자관련 특성(이전의 성관계 및 성경험, 옷차림, ⑤ 피해자에 대한 의심(왜 기억이 사라지거나 희미해졌는지, 거짓말탐지기사용여부). 캠벨이 파악한 형사사법계의 이차피해 유발 행동은 크게, 수사에 대한 경찰의 낮은 동기, 저항여부, 정황 및 피해자관련 특성, 피해자에 대한 의심으로 분류된다.

6. 가설적 연구모형 개발

문헌연구를 토대로 경찰의 성폭력 편견, 피해자에 대한 비난 및 의심이 경찰의 이차피해 유발 수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성폭력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찰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경찰의 태도 변인을 성폭력에 대한 편견, 피해자 비난적 태도, 의심의 세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7) Campbell(2006, p35)은 경찰, 검사, 의사, 간호사, 성폭력위기센터 직원, 강간피해자들에게 강간피해자를 당황시키는 서비스제공자의 행동(이차피해 행동)을 조사하여, 강간피해자에게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행동을 경험한 정도를 조사함. 5점 척도에서 3점 이상인 항목을 토대로 경찰 신고, 수사, 의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피해유발 행동의 목록을 제시함.

이러한 경찰의 태도로 인하여 유발되는 이차피해를 측정하고자, 성폭력사건의 근거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차피해를 유발하는 수사행동을 구성하였다. 경찰이 성폭력 수사에서 반드시 조사하는 증거요인(신체적 상해, 약물사용, 증인 등)을 제외하고, 이차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증거외적 요인(저항·동의, 정황, 피해자 특성)을 중심으로 모형을 구성하였다. 성폭력사건의 수사근거로서 이와 같은 증거외적 요인을 중요시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차피해를 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증거외적 요인(저항·동의, 정황, 피해자 특성)을 중시하는 정도를 통해 이차피해유발 수사행동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간주하였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지니는 태도(성폭력 편견, 비난, 의심)가 이차피해 유발 수사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수사의 어려움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수사의 어려움의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수사의 어려움을 동기부족과 증거부족의 2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III. 연구방법

1. 응답률 및 연구대상자

경남의 3개 중소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 전원을 대상으로 94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중 423부가 회수되어 45.0%의 응답률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수사경험이 있는 남성 경찰관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와 같은 기준에

맞지 않는 자료 232부(수사경험 없는 경우 187부, 여성경찰관 9부, 불성실한 응답 45부)를 제외한 후 182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만 27세에서 58세로 평균연령은 43.03세였고, 학력은 고졸이하가 69명(37.9%), 대졸이 109명(59.9%), 대학원이상이 1(0.5%), 무응답이 3명(1.6%)이었다. 이들의 평균 근무기간은 17년 5.26개월이었고 근무기관은 지구대가 108명(59.3%), 경찰서가 58명(31.9%), 파출소가 12명(6.6%), 무응답이 4명(2.2%)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성폭력에 대한 편견

강간은 ‘원치않는,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비동의에 의한 성관계’로 정의되지만(Cook et al., 2011, pp 202-203), 성관계를 강요한 방식 및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성폭력, 강간의 정의에 내재된 모호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낮선 사람에 의한, 신체적 완력을 사용한, 신체적 상해를 포함한 성폭력’만을 “진짜 강간”으로 보는 강간신화(Chen & Ullman, 2010, p275)를 토대로 하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 가해자와 아는 관계일 경우 그리고 신체적 상해를 입는 등의 강력한 저항의 흔적이 없다면, 성폭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이 지배적이다(Renner, 2002, p144).

본 연구에서 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명 여부, 저항과 상해의 흔적이 없는 경우, 아는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 경찰이 지니는 태도로 개념화하였다.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측정하기 위해, 거부 의사가 명확히 표현되지 않은 경우(1문항), 아는 관계 또는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4문항), 저항 및 상해의 흔적이 없는 경우(2문항)에 이를 성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7문항을 연구자가 개발하였다.⁸⁾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잘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한다’와 같이

8)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측정하는 7문항 중, ‘거부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와 ‘아는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성폭력에 대해 지니는 편견은 이명신과 이계민(2009)의 연구에서 처음 개발되었으며, 그 외의 5문항은 이명신과 양난미(2011, p68)의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개발되었음.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묻는 지시문을 주고 반대와 찬성정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매우 반대(1)’에서 ‘매우 찬성(4)’의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편견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s alpha*값은 .86이었다.

2)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

강간 신화를 토대로 성폭력을 당한 “진짜 희생자”는 “낮선 사람에 의해 강간당한, 저항하는 동안 신체적 상해를 입은, 정숙한, 성관계가 난잡하지 않은 여성, 알콜과 약물사용 등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 여성”으로 묘사된다(Du Mont et al., 2003, pp 469-470). 이러한 “진짜 희생자”의 틀에 맞지 않는 피해 여성은 ‘성폭력을 당할 만하다’ 또는 ‘성폭력을 유발하는 행동을 한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측정하기 위해, 로스(Ross)의 강간에 대한 잘못된 17가지 관념⁹⁾과 버트(Burt)의 강간통념¹⁰⁾을 토대로, 단정하지 못한 행실과 몸가짐(2문항), 성폭력을 유발하는 행동(3문항), 끝까지 저항시 강간 불가능(1문항)으로 구성된 6문항을 연구자가 개발하였다.¹¹⁾ ‘여성이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을 당할 수 없다’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태도를 나타내는 지시문을 주고 반대와 찬성정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매우 반대(1)’에서 ‘매우 찬성(4)’의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s alpha*값은 .86이었다.

9) Beverly Ross(1996)의 강간에 대한 17가지 관념 중 ‘여성은 종종 성폭행과 강간을 도발, 유혹한다’, ‘고상한 여성은 강간당하지 않는다.’ ‘적어도 일정 부류의 여성은 강간당해 마땅하다’ 등의 내용을 참고함(조국, 2002, pp 187-188).

10) Burt의 ‘강간통념’ 중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과 행동이 강간을 유발한다’,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을 불가능하다’를 참고함(신현기와 이상열, 2006, p257).

11) ‘저항시 강간 불가능’, ‘심한 노출’과 ‘행실이 좋지 않은 여성’에 대한 비난을 내용으로 하는 3문항은 이명신과이계민(2009)의 연구에서 개발되었으며, 그 외의 3문항은 이명신과 양난미(2011)의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개발되었음.

3)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심

강간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고 피해여성을 비난하는 태도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들며, 그 결과 성폭력 고소 자체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성폭력 수사과정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Lord & Rassel, 2002, p155). 이러한 점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심은 성폭력 사건 고소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과, 피해자에 대한 신빙성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성폭력범죄 피해고소가 무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편견(조국, 2002, p190)은 즉각 신고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의심하게 만든다. 또한 가해자가 다른 면에서는 형사적으로 위험하지 않거나 사회적 평판이 좋은 사람일 경우 법정은 가해자에게 최대한 관대하며, 도리어 피해자가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Renner, 2002, p140).

이러한 문헌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즉각 신고하지 않은 경우(1문항)과 가해자의 높은 사회적 지위와 평판이 좋을 경우(1문항), 가해자가 다른 면에서는 형사적 위협이 없을 경우(1문항) 피해자를 의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3 문항을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심이 든다’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심정도를 묻는 지시문을 주고 일치하는 정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매우 불일치(1)’에서 ‘매우 일치(4)’의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피해자에 대한 의심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s alpha*값은 .69이었다.

4) 동기부족으로 인한 수사의 어려움

성폭력을 신고하여도 경찰이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거나, 늦장 대처, 수사의 지연 및 소극적 수사태도를 취하는 것은(조호대, 2004, p255; 광대경과 광영길, 2006, p283) 성폭력 사건 수사에 차질을 빚을 뿐아니라, 이차피해를 야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성폭력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소극적 대처는 동기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사건을 수사할 때 동기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는 동기의 부족(1문항), 다른 사건을 성폭력 사건보다 우선순위를 둠(1문항),

신고후 72시간 내에 출동하기 어려움(1문항)으로 이루어진 3문항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성폭력은 다른 심각한 형사사건보다 수사의 우선순위에서 밀림’과 같이 성폭력 수사에서 동기부족으로 인한 성폭력 수사의 어려움을 묻는 지시문을 주고 어려움 정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매우 불일치(1)’에서 ‘매우 일치(4)’의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동기부족으로 성폭력 수사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s alpha*값은 .79이었다.

5) 증거부족으로 인한 수사의 어려움

성폭력은 은밀한 장소에서 일어나므로 이를 입증하기 상당히 어려운 범죄이며(황정익, 2007, p421) 목격자도 없고 피해자가 유일한 증인인 경우가 많다(조국, 2002, p185).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필요한 증거의 확보가 증시되지만(황현락, 2007, p396),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의학적 증거 확보가 어려울 뿐아니라(김용근, 2008, p108), 목격자, 증인 확보가 어려워 근거불충분으로 수사의 진척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처럼 성폭력 사건의 증거 확보가 어려울수록 성폭력에 대한 편견, 피해자 비난 및 의심은 경찰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없는 증거외적 요인(저항·동의 여부, 정황, 피해자 특성)에 치중하게 만듦으로써 이차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성폭력 사건 수사시 증거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법의학증거확보의 어려움(1문항), 목격자, 증인 확보의 어려움(1문항), 근거불충분으로 수사진척 불가능(1문항)으로 구성된 3문항을 연구자가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근거불충분으로 수사 진척이 어려움’과 같이 성폭력 수사에서 증거부족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을 묻는 지시문을 주고 어려움 정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매우 불일치(1)’에서 ‘매우 일치(4)’의 4점 척도였고 점수의 의미는 점수가 높을수록 증거부족으로 인해 성폭력 수사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s alpha*값은 .80이었다.

6) 수사근거로서 저항·동의의 중요성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피해를 측정하기 위해 이차피해행동을 실제로 했는지를 질문하기보다는, 성폭력 사건의 근거충분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저항·동의, 정황, 피해자 특성을 중요시하는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¹²⁾

형사사법기관의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피해를 측정하고자 캠벨(2006, p39)은 ‘가해자에게 저항했는지 또는 성적으로 반응했는지’와 같은 질문을 경찰이 피해자에게 했는지를 조사하였다. 캠벨의 연구를 토대로, 이차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수사근거로서 저항·동의여부를 중시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연구자는 수사근거로서의 ‘저항여부’(1문항)와 ‘성관계에 동의여부’(1문항)를 중요시하는지 질문하고 이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전혀 중요하지 않음(1)’에서 ‘아주 많이 중요함(4)’의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수사근거로서 저항·동의를 중요시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s alpha*값은 .69이었다.

7) 수사근거로서 정황의 중요성

성폭력 수사과정에서 이차피해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캠벨(2006, p39)은 경찰이 ‘가해자와의 이전 관계, 왜 그 시간 그 장소에 가해자와 함께 있었는지’ 등의 성폭력 발생 당시의 정황에 대해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콜과 로건(Cole, J. & Logan, T.K., 2010, p344)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신고가 지연되거나 신고된 방식 등이 수사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수사근거로서 정황을 중시함으로써 이차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고자, 가해자와의 관계(1문항), 데이트상대 여부(1문항), 성폭행 발생장소 및 시간(2문항), 즉시 신고여부와 처음 신고한 시간(2문항)으로 구성된 6문항을 연구

12) 경찰 수사과정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차피해 행동을 측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의 근거로서 저항·동의, 정황, 피해자 특성을 중요시하는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차피해유발행동(가능성)을 측정하고자 함.

자가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수사근거로서의 성폭력 발생 당시의 정황을 중요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해자와의 관계’와 같은 성폭력 발생 당시의 정황을 중요시하는지 질문하고 이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전혀 중요하지 않음(1)’에서 ‘아주 많이 중요함(4)’의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수사근거로서 저항동의를 중요시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s alpha*값은 .91이었다.

8) 수사근거로서의 피해자특성의 중요성

피해자의 성관계, 옷차림, 행동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이차피해를 측정하고자 한 캠벨(2006, p39)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이전 성관계, 옷차림, 생활방식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격하시킬 뿐 아니라(조국, 2002, p190),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과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이차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성폭력 사건으로서 근거충분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피해자 특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차림(1문항), 성경험, 다수 파트너의 존재(1문항), 평소의 행실(1문항), 피해자의 직업 및 사회적 지위(1문항)의 4 문항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피해자의 옷차림’과 같은 피해자특성을 중요시하는지 질문하고 ‘전혀 중요하지 않음(1)’에서 ‘아주 많이 중요함(4)’의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수사근거로서 피해자특성을 중요시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s alpha*값은 .94였다.

3. 자료 분석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lpha*값을 검토하였고 현재 남성 경찰관들의 성폭력사건 수사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별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각 변인들간의 관계를 모형으로 구성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모형검증 방식은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는지 검토하는 측정모형 검증과 잠재변수간의 관계

를 검증하는 이론모형검증의 2단계 방식을 사용하였다(Anderson & Gerbing, 1988; 배병렬, 2007, p212). 측정모형 검증을 할 때 변인별 총 문항이 2-4개인 의심, 증거부족, 동기부족, 저항동의, 피해자특성은 개별문항을 측정변수로 사용하였고 총 문항이 6-7개인 편견, 비난, 정황은 각 변인별로 3개의 문항꾸러미(item parcels)를 만들어 사용하였다(Russell et al., 1998; 서영석, 2010, p1153에 재인용). 모형검증에서 최대우도법을 추정방법으로 사용하였고 모형적합도는 TLI, CFI, RMSEA를 사용하여 표본크기에 대한 민감성, 모형의 간명성, 해석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였다.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는 .05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로 판정되고, .08이하이면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해석되고 상대적 적합도인 TLI, CFI는 .90 혹은 .95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배병렬, 2007, p259). 모든 통계분석은 PASW 18과 AMOS 18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성폭력에 대한 편견, 피해자에 대한 비난, 의심

남성경찰관의 성폭력에 대한 편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각 문항별로 찬반의견을 물었을 때, 성폭력에 대한 편견의 경우, 모든 문항에 반대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 나타나 남성경찰관이 지니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 정도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거부의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다면 성폭력으로 볼 수 없다.', '데이트 성폭력은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로 볼 수 없다'에는 찬성하는 비율이 각기 24.7%, 20.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 성폭력에 대한 편견

	내용	매우 반대	반대	찬성	매우 찬성	M (SD)	반대	찬성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잘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한다.	47 (26.6)	105 (59.3)	22 (12.4)	3 (1.7)	1.89 (.67)	85.9	14.1
	서로 잘 아는 관계에서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강간으로 보기 어렵다.	60 (33.3)	98 (54.4)	22 (12.2)	0 (0.0)	1.79 (.64)	87.8	12.2
	데이트하다가 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경우 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	47 (25.8)	105 (52.7)	29 (15.9)	1 (.5)	1.91 (.66)	83.5	16.5
편 견	데이트 성폭력은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로 볼 수 있다.	34 (18.7)	111 (61)	36 (19.8)	1 (.5)	2.02 (.64)	79.7	20.3
	피해자가 거부의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다면 성폭력으로 볼 수 없다.	51 (28)	86 (47.3)	42 (23.1)	3 (1.6)	1.98 (.76)	75.3	24.7
	눈에 띄는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성폭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64 (35.2)	111 (61)	7 (3.8)	0 (0.0)	1.69 (.54)	96.2	3.8
	피해자가 저항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	58 (31.9)	103 (56.6)	20 (11.0)	1 (.5)	1.80 (.64)	88.5	11.5

피해자에 대한 비난태도에 있어서는 찬반의 정도에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여성의 심한 노출로 인해 성폭력이 발생한다’에 찬성하는 정도가 무려 53.8%에 달했다, ‘술취한 여성이 성폭행당한 경우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 ‘밤거리를 혼자 걷다가 성폭행당한 여성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몸가짐이나 행실이 단정하지 못한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한다’ 등의 문항에 찬성하는 정도는 20.3~37.4%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성폭력을 당한 피해 여성에게도 책임이 있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정도가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 피해자에 대한 비난

내용		매우 반대	반대	찬성	매우 찬성	M (SD)	반대	찬성
비 난	여성이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을 당할 수 없다.	61 (35.6)	102 (53.9)	18 (9.9)	1 (.5)	1.77 (.638)	89.6	10.4
	술취한 여성이 성폭행당한 경우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	27 (14.8)	87 (47.8)	60 (33)	8 (4.4)	2.27 (.77)	62.6	37.4
	여성의 심한 노출로 인해 성폭력이 발생한다.	23 (12.6)	61 (33.5)	93 (51.1)	5 (2.7)	2.44 (.74)	46.2	53.8
	밤거리를 혼자 걷다가 성폭행당한 여성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36 (19.8)	109 (59.9)	35 (19.2)	2 (1.1)	2.02 (.66)	79.7	20.3
	여자가 몸가짐이 오죽했으면 성폭행을 당했을까 하고 생각한다.	42 (23.1)	119 (65.4)	21 (11.5)	0 (0)	1.88 (.58)	88.5	11.5
	일반적으로 몸가짐이나 행실이 단정하지 못한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한다.	32 (17.6)	89 (48.9)	55 (30.2)	6 (3.3)	2.19 (.76)	66.5	33.5

<표 4>에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심을 나타내는 문항과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문항에 대한 일치, 불일치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불일치 비율이 대부분 70%이상으로 나타나, 경찰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는 정도는 대체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즉 신고를 한 후 피해자의 진술을 들을 때 대부분의 경찰들은 진술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 진술에 의심이 든다’, ‘가해자가 본 사건외에 다른 형사적 위협이 없다고 보일 때 피해자의 말을 믿기 어렵다’에 대해 일치한다는 응답이 24.2%로 나타나, 응답자의 1/4정도는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의심

	내용	매우 불일치	불일치	일치	매우 일치	M (SD)	불일치	일치
의 심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심이 든다.	20 (11.0)	118 (64.8)	43 (23.6)	1 (.5)	2.14 (.59)	75.8	24.2
	가해자가 선생님, 종교인 등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경우,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말에 더 신빙성이 간다.	55 (30.2)	105 (57.7)	21 (11.5)	1 (.5)	1.82 (.64)	87.9	12.1
	가해자가 본 사건 외에는 다른 형사적 위협이 전혀 없다고 보일 때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말을 믿기 어렵다.	15 (8.2)	127 (69.8)	39 (21.4)	1 (.5)	2.14 (.55)	78	22

2. 성폭력 수사의 어려움: 동기부족, 증거부족

성폭력수사에 대한 동기부족으로 인해 수사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정도를 조사했을 때, 50% 이상의 경찰이 동기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응답은 동기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경찰 역시 대략 50%에 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증거부족으로 인해 수사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정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증거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찰은 3.8%~7.1%에 불과했다. ‘목격자 및 증인 확보의 어려움,’ ‘근거불충분으로 수사 진척 불가능,’ ‘법의학 증거확보의 어려움’ 등 증거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모두 90%를 상회하였다.

〈표 5〉 성폭력 수사의 어려움: 동기 부족, 증거부족

	수사의 어려움	전혀 없다	어려움 정도			M (SD)
			다소	상당히	아주 많이	
동 기 부 족	72시간 내 출동하기 어려움	103 (56.6)	55 (30.2)	22 (12.1)	2 (1.1)	1.58 (.75)
	성폭력은 다른 심각한 형사사건보다 수사의 우선순위에서 밀림	110 (60.4)	54 (29.7)	17 (9.3)	1 (.5)	1.50 (.69)
	성폭력사건 수사에 대한 동기가 낮음	94 (51.6)	73 (40.1)	14 (7.7)	1 (.5)	1.57 (.66)
증 거 부 족	근거불충분으로 수사 진척 불가능	10 (5.5)	95 (52.2)	63 (34.6)	14 (7.7)	2.45 (.72)
	법의학 증거 확보의 어려움	13 (7.1)	86 (47.3)	72 (39.6)	11 (6.0)	2.45 (.72)
	목격자, 증인 확보의 어려움	7 (3.8)	79 (43.4)	62 (34.1)	34 (18.7)	2.68 (.82)

3. 이차피해 유발 수사행동 (저항·동의, 정황, 피해자 특성을 중요시하는 정도)

성폭력사건의 수사근거로서 증거외적 요인을 중요시할수록, 피해자에게 이차피해를 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차피해 유발 수사행동을 간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수사근거로서의 저항·동의, 정황, 피해자 특성을 중요시하는 정도를 질문하였다.

저항·동의를 수사근거로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6%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저항·동의를 수사근거로 중요시하는 정도가 무려 94%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폭력이 발생한 정황을 중요시하는 정도는 정황의 내용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와 아는 관계’ 또는 ‘데이트 상대 여부’, ‘성폭행 발생장소’, ‘성폭행 발생시간’을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내외로, 수사근거로 이러한 요인을 중요시하는 정도가 약 80%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해자의 특성을 수사근거로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9.0~47.3%로 나타나, 피해자 특성을 중요시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50%이상의 경찰은 아직도 이러한 피해자

특성을 중요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6〉 이차피해 유발 수사행동(저항·동의, 정황, 피해자 특성을 중요시 하는 정도)

수사근거로서 중요시하는 수사내용		전혀 중요하 지 않다	중요한 정도			M (SD)
			다소	상당히	아주 많이	
저항 동의	저항 여부	11 (6.0)	71 (39.0)	64 (35.2)	36 (19.8)	2.69 (.86)
	성관계에 대한 동의성 여부	11 (6.0)	62 (34.1)	54 (29.7)	55 (30.2)	2.84 (.93)
정황	가해자와 관계(아는 사람 vs. 모르는 사람)	36 (19.8)	59 (32.4)	59 (32.4)	28 (15.4)	2.43 (.98)
	데이트 상대 여부	41 (22.5)	78 (42.9)	48 (26.4)	15 (8.2)	2.20 (.88)
	성폭행 발생장소(밤거리, 유 홍업소, 집 등)	29 (15.9)	71 (39.0)	58 (31.9)	24 (13.2)	2.42 (.91)
	성폭행 발생시간	38 (20.9)	75 (41.2)	50 (21.5)	19 (10.4)	2.27 (.91)
	성폭행 발생 즉시 신고했는 지 여부	57 (31.7)	68 (37.8)	38 (21.1)	17 (9.4)	2.08 (.95)
	처음 신고한 시간 (성폭행 후 신고한 시점)	51 (28.2)	67 (37.0)	45 (24.9)	18 (9.9)	2.17 (.95)
	피해자의 옷차림	78 (42.9)	62 (34.1)	26 (14.3)	16 (8.8)	1.89 (.96)
	피해자의 성격험, 다수의 성 파트너 유무	80 (44.0)	51 (28.0)	39 (21.4)	12 (6.6)	1.91 (.96)
피해자 특성	피해자의 평소 행실, 행동	71 (39.0)	66 (36.3)	36 (19.8)	9 (4.9)	1.91 (.88)
	피해자의 직업, 사회적 지위	86 (47.3)	52 (28.6)	33 (18.1)	11 (6.0)	1.83 (.93)

4. 상관분석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간의 상관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편견은 비난 및 의심과, 비난은 의심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의심은 동기부족, 정황 및 피해자 특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동기부

족은 증거부족, 정황 및 피해자 특성과, 증거부족은 저항·동의와 그리고 정황은 피해자 특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표 7〉 상관분석

변인	1 편견	2 비난	3 의심	4 동기부족	5 증거부족	6 저항·동의	7 정황	8 피해자특성
1	—							
2	.51**	—						
3	.34**	.18*	—					
4	.07	.10	.20**	—				
5	-.09	.00	-.05	.32**	—			
6	-.06	.06	-.01	.03	.23**	—		
7	-.10	.07	.24**	.23**	.09	.53**	—	
8	.03	.12	.31**	.30**	.10	.37**	.80**	—
M	1.88	2.09	2.03	1.55	2.52	2.77	2.23	1.88
SD	.50	.53	.47	.59	.63	.78	.79	.85

주. $N=182$, * $p<.05$, ** $p<.01$

5. 이차피해유발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측정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변수들의 정상성을 살펴본 결과, 왜도는 -.50에서 1.13 사이였고, 첨도는 -1.09에서 .62 사이로 나타나 각 측정변수가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에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df=161, N=182)=255.823$ 이었고($p<.001$), CFI=.956, TLI=.942, RMSEA=.057로 좋은 적합도로 나타났다. 그리고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은 최소 .493에서 최대 .999로 모든 유의수준 .001에서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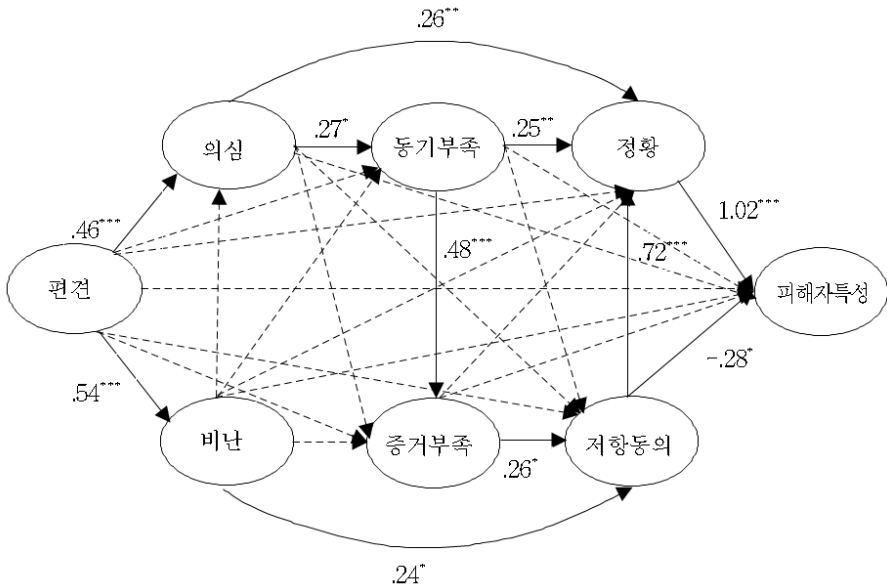
구조방정식 모형검증 결과 $\chi^2(df=161, N=182)=255.823$ 이었고($p<.000$), CFI=.956, TLI=.942, RMSEA=.057으로 좋은 적합도로 나타내어 모형이 변수간의 관계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편견, 비난, 의심, 동기부족, 증거부족, 저항·동의, 정황, 피해자 특성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를 검증한 결과,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형에 포함된 경로 중에서 11개 경로가 유의하였다. 먼저 편견은 비난($\beta=.54, p<.001$)과 의심($\beta=.46, p<.001$)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심은 동기부족($\beta=.27, p<.05$)

과 정황($\beta=.26, p<.01$)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난은 저항·동의($\beta=.24, p<.05$)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기부족은 증거부족($\beta=.48, p<.001$)과 정황($\beta=.25, p<.01$)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거부족은 저항·동의($\beta=.26, p<.05$)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저항·동이는 정황($\beta=.72, p<.001$)에 정적 영향을, 피해자($\beta=-.28, p<.05$)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황은 피해자($\beta=1.03, p<.001$)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변수간의 경로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임계치
편견 → 비난	.54***	.58	.08	7.33
편견 → 의심	.46***	.28	.08	3.68
편견 → 동기부족	-.08	-.09	.13	-.72
편견 → 증거부족	-.08	-.09	.13	-.71
편견 → 저항·동의	-.20	-.22	.13	-1.70
편견 → 정황	-.07	-.11	.14	-.77
편견 → 피해자 특성	-.05	-.08	.10	-.74
비난 → 의심	-.02	-.01	.05	-.22
비난 → 동기부족	.13	.13	.11	1.25
비난 → 증거부족	-.05	-.06	.11	-.56
비난 → 저항·동의	.24*	.24	.11	2.25
비난 → 정황	-.02	-.03	.11	-.30
비난 → 피해자 특성	.04	.05	.09	.62
의심 → 동기부족	.27*	.52	.23	2.31
의심 → 증거부족	-.14	-.29	.23	-1.28
의심 → 저항·동의	-.03	-.05	.21	-.22
의심 → 정황	.26**	.66	.25	2.65
의심 → 피해자 특성	.09	.25	.20	1.26
동기부족 → 증거부족	.48***	.50	.11	4.50
동기부족 → 저항·동의	-.10	-.10	.11	-.88
동기부족 → 정황	.25**	.34	.12	2.78
동기부족 → 피해자 특성	.05	.07	.10	.64
증거부족 → 저항·동의	.26*	.24	.10	2.31
증거부족 → 정황	-.17	-.22	.11	-1.92
증거부족 → 피해자 특성	.06	.08	.09	.92
저항·동의 → 피해자 특성	-.28*	-.40	.16	-2.46
저항·동의 → 정황	.72***	1.01	.15	6.54
정황 → 피해자 특성	1.02***	1.06	.13	8.35

N=182, *** $p<.001$, ** $p<.01$, * $p<.05$



[그림 2] 변인간의 관계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에서는 경찰이 지니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피해자에 대한 태도(비난과 의심), 수사의 어려움, 이차피해유발 수사행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성폭력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이차피해유발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찰수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차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대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성폭력 수사과정 실태 및 이차피해유발 수사행동 결정요인

1) 성폭력 수사에 임하는 경찰의 태도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조사했을 때, 성폭력에 대한 편견의 정도는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상해나 저항한 흔적이

없는 경우 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편견은 아주 낮은 반면, ‘데이트 성폭력의 동의성 여부와 거부의사 명확성’에 대한 편견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아는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경우 동의성(거부의사 표현) 여부’에 관한 편견은 아직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아는 관계에서의 동의성(거부의사 표현)여부에 대한 편견이 수사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성폭력에 대한 편견에 비해, 남성경찰관의 피해자 비난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음주여부, 심한 노출, 몸가짐과 행실로 인해 성폭력을 자초했다고 비난하는 태도’(33.5%~53.8%)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이는 성폭력피해 여성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남성경찰관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경찰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는 정도는 대체로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가해자가 다른 면에서는 형사적 위협이 없다고 보일 때’에는 피해자의 말을 믿기 어렵다는 입장인 거의 1/4정도로 나타났다. 성폭력피해를 즉시 신고했는지 여부와 가해자를 위협적으로 간주하지 않을 때, 도리어 피해자에 대해 의심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성폭력 수사의 어려움

성폭력수사에 대한 동기부족으로 인해 수사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50%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다수의 경찰은 증거부족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목격자 및 증인 확보의 어려움,’ ‘근거불충분으로 수사 진척 불가능,’ ‘법의학 증거확보의 어려움’은 증거부족으로 인한 수사의 어려움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대략 50%의 경찰이 동기부족으로 인한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90%이상의 경찰이 증거부족으로 인한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경찰이 동기부족과 증거부족으로 인해 성폭력사건을 수사할 때 느끼는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수사실무의 개선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3) 이차피해유발 수사행동의 실태

성폭력 사건의 근거충분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저항·동의, 정황, 피해자 특성을 중요시하는 정도를 알아봄으로써, 성폭력 수사과정에서 이차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수사행동을 간접적으로 측정하였다. 저항·동의를 수사근거로서 중요시하는 정도는 무려 94%였으며, 피해자의 특성을 중시하는 정도는 50%이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폭력이 발생한 정황을 중요시하는 정도는 정황의 내용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와 아는 관계’ 또는 ‘데이트 상대 여부’, ‘성폭행 발생장소’, ‘성폭행 발생시간’을 중요시하는 정도는 80%정도인 반면, ‘즉시 신고여부와 처음 신고한 시간’을 중시하는 정도는 약 7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수사근거로서 중요시하는 정도는 저항·동의, 정황, 피해자의 특성의 순서였으며, 이를 수사의 근거로 중요시하는 정도(50%~90%)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수사과정에서 이와 같은 증거외적 요인을 중요시 할수록, 피해자에게 사건과 관련없는 질문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질문을 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이차피해를 유발하는 수사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증가된다.

4) 이차피해 유발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폭력사건 수사시 발생할 수 있는 이차피해유발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자, 경찰의 성폭력 편견과 피해자에 대한 태도(비난과 의심), 수사과정의 어려움(증거부족, 동기부족), 이차피해유발 수사행동(저항·동의, 정황, 피해자 특성) 간의 상호관계를 탐색해 보기 위해 문헌을 토대로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고, 이러한 가설적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의심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수사의 어려움이나 이차피해 유발 수사행동(저항·동의, 정황, 피해자특성)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난은 저항·동의를 중시하는 수사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난적 태도를 지닐수록 경찰의 저항·동의를 중시하는 수사행동이 증가될 것이다. 한편, 의심은 동기부족으로 인한 어려움과 정황을 중시하는 수사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심이 증가될수록, 동기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증가되며, 또한 의심이 증가될수록 정황을 중시하는 수사행동이 증가될 것이다.

동기부족으로 인한 수사의 어려움은 증거부족으로 인한 수사의 어려움과 정황을 중시하는 수사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부족으로 인한 수사의 어려움이 클수록, 증거부족으로 인한 수사의 어려움이 증대된다. 동기부족으로 인한 수사의 어려움이 클수록, 정황을 중시하는 수사행동이 증가될 것이다. 증거부족은 저항·동의를 중시하는 수사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거부족으로 인한 수사의 어려움이 클수록, 저항·동의를 중시하는 수사행동이 증가될 것이다.

저항·동의를 중시하는 수사행동이 증가될수록, 정황을 중시하는 수사행동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항·동의를 중시하는 수사행동이 증가될수록, 피해자 특성을 중시하는 수사행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황을 중시하는 수사행동이 증가될수록, 피해자 특성을 중시하는 수사행동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폭력수사과정에서 이차피해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1) 이차피해에 대한 경찰의 의식향상 캠페인

그동안 경찰은 성폭력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지원을 위한 수사방침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¹³⁾ 이러한 경찰계의 노력으로 성폭력수사에 임하는 경찰관들의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피해자에 대한 선입견은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고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남성경찰관들의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그다지 변화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13) 피해자의 지원을 위해 2005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 416호)의 제정 이후, 경찰은 피해자심리 전문경찰관 특채, 피해자서포터제도와 피해자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를 위한 수사방침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신성대, 2009, pp 20-23).

본 연구에서 남성경찰관의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는 비율은 다소 낮은 편이었지만,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몸가짐과 행실, 음주와 심한 노출’로 인해 성폭력을 자초했다고 생각하는 경찰관이 아직도 상당수 있으며, ‘아는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경우 동의성(거부의사표현) 여부’에 대한 편견도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피해자 비난태도와 의심을 증가시킴으로써 성폭력 수사과정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비난태도는 수사근거로서 저항·동의를 중시하게 하며, 의심은 동기부족으로 인한 수사의 어려움을 증대시키고, 수사근거로 정황을 중시하게 함으로써 이차피해를 유발하는 수사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비난과 의심)는 성폭력 수사과정에서 이차피해 유발 수사행동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되고 관련 법이 수없이 개정되더라도, 성폭력수사 일선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직접 대하고 법집행을 실천에 옮기는 수사관들이 이러한 변화를 신속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괴리(lag)현상을 반영한다.

아무리 법이 개정되고 수사지침이 만들어지더라도, 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의식이 변하지 않고서는 그 목표의 접근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곽대경과 곽영길, 2006, p287), 성폭력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들의 인식과 변화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성폭력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차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성폭력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의식향상(consciousness raising)을 위한 캠페인을 경찰 내부에서는 물론, 사회 대대적으로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 전반에 팽배한 “성폭력피해자 비난하기”를 종식시키기 위해 이러한 캠페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경찰의 의식전환 및 전문화를 위한 교육

성폭력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겪는 이차피해는 강간통념, 성폭력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증거위주의 수사관행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성폭력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성범죄에 대한 남성 중심의 고정관념, 성폭력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찰의 당연한 수사관행이 피해자들에게는 이차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피해자의 고통과 욕구에 대해 보다 민감한 태도를 지니고 “피해자보호중심”의 수사를 펼쳐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인식 및 태도 변화, 수사관행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경찰의 교과과정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와 이차폭력에 대한 체계적 교육, 인권 감수성교육(김용근, 2008, p114), 양성평등교육(신성대, 2009, p51)을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이명신과 양난미, 2011, p179에 재인용).

한편, 성폭력 수사과정에서의 이차폭력은 경찰이 (주로 여성인) 성폭력 피해자를 대하는 동안 원활한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술의 부족에서 초래되기도 한다. 이차피해를 방지하고 경찰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피해자에게 공격적이거나 사생활 침해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수사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면접 및 의사소통기술에 대한 실무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이차피해 자가진단을 위한 사정도구 개발, 경찰의 자가사정 체계 구축

성폭력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이차피해에 대한 수많은 문헌과 연구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성폭력 수사과정을 경험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본 연구에서 성폭력 수사에서 이차피해를 유발하는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험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으나,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성폭력 수사시 발생하는 이차피해를 사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는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경찰은 수사를 위해 피해자를 대하는 과정에서 취한 행동이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가 이미 입은 외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하는 것이 중요하다(Kaukinen & DeMaris, 2009, p1350). 그러나 많은 경찰관들이 이차피해의 위험성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수사행동이 이차피해에 해당하는지, 어느 정도의 이차피해를 피해자에게 주고 있는지 전혀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자신의 이차피해 유발 수사행동을 스스로 사정할 수 있는 이차피해 사정도구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러한 이차피해 사정도구가 개발된다면, 경찰이 자신의 수사행동을 사정하고 이차피해 실태를 스스로 확인해 봄으로써 이차피해에 대한 민감성 증진은 물론, 이차피해 방지를 위한 자가사정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가사정체계가 구축된다면, 경찰의 책무성있는 실천이 가능해지며,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될 것이다.

4) 성폭력 관련 법 개정

성폭력(강간)에 대한 정의에 내재된 문제점, 즉 저항과 동의여부에 대한 모호성으로 말미암아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저항과 상해여부, 합의하의 성관계(또는 거부 의사 표현)여부와 관련된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고수하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차피해를 유발하는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성폭력 수사과정으로부터 피해자의 인권보호는 물론, 프라이버시와 개인적 삶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성폭력 이전의 행실, 행적을 요구하는 관행을 폐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영국의 Sexual Offences Act는 피해자의 과거 성경험에 대한 질문을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의 Rape Shield Law에서는 성범죄피해자의 과거 성경험은 현재의 가해자와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일체 질문하지 않으며,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과 피해자의 평판 등에 대한 질문을 자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류병관, 2006, p412; Kaukinen & DeMaris, 2009, p1351).

성폭력사건 수사에 있어 강압에 의한 성관계, 상해여부와 강력한 저항의 흔적이라는 구성요건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피해자 보호는 커녕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조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성폭력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사건과 무관한 사적 질문이나 피해자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수사관행을 저지하기 위한 법의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성폭력(강간)범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 구성요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에서 성폭력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차피해를 감소시키고 성범죄사건 소실율(낮은 기소율과 낮은 유죄판결율)을 낮출 수 있도록 성폭력관련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5) 여성친화적인 환경 조성

연쇄강간을 당한 여성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의 관점에서 무엇이 완벽한 경찰수사(perfect policing)인지 조사한 한 연구(Jordan, 2008, p715)에 의하면, 성폭력피해자들은 자신을 믿어주고 정당성을 인정해주고 보증해 주는 것(being believed, validated, reassured)이 가장 필요했다고 언급했으며, 프라이버시와 안정성 역시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받는 과정에서 비난당하고 의심받는 가운데 재차 희생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신들을 믿어주고 자신들의 말에 공감(empathy)과 민감성을 보여주길 원한다. 이처럼 성폭력피해 여성을 믿어주고 그들의 고통과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인격적 존중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안전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환경 속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여성친화적인(female-friendly)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Campbell & Raja, 2005, p105)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에서는 경찰이 지니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피해자에 대한 태도(비난과 의심), 그리고 수사의 어려움이 성폭력 수사를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떻게 성폭력피해자에게 이차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으로 전환되는지? 그 과정을 경험적으로 탐색해 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 수행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몇 가지 연구의 한계를 안고 있다. 본 연구에 내포된 몇 가지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성폭력피해자에게 미치는 이차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일선 경찰관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경남의 세 도시의 경찰을 전수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율이 50%에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경남지역의 남성경찰관만을 조사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이론 모델의 검증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조심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 제시된 이론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재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일 충분한 수의 여성경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이론 모델을 토대로 남녀 경찰관의 차이점을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험적 연구가 많지 않은 가운데 경찰의 이차피해 유발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시도하기 위해, 문헌을 토대로 연구자가 직접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해 내용타당성을 검토하였고, 신뢰도검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지만, 척도의 타당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교차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수사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이차피해 유발 수사행동을 측정하고자, 성폭력사건의 근거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차피해 유발 수사행동의 척도를 구성하였다. 실제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했을 경우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반응편향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사건의 수사근거로서 증거외적 요인(저항·동의, 정황, 피해자 특성)을 중시하는 정도를 통해 이차피해유발 수사행동을 간접적으로 측정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직접적 수사행동의 관찰을 통해 또는 경찰의 자기보고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차피해유발 수사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가 개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피해자에 대한 태도, 수사의 어려움이 이차피해유발 수사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경험적으로 탐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수사과정을 왜곡시키고 피해자에게 이차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이

밝혀졌으나,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는 것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성폭력피해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법제도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경험적 연구와 더불어 이를 법제도적 변화로 이끌 수 있는 claim-making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곽대경·곽영길(2006).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아동의 2차 피해에 대한 보호방안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4호, pp. 275-301.
- 경찰청·한국형사사법정책연구원(2012). 2011 범죄백서.
- 김승권 외 13인(2008). 2007년 전국 성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김용근(2008). 경찰수사단계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방안, 피해자학 연구, 제16권, 제2호, pp. 101-121.
- 류병관(2006).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 방지 대책, 법과 정책연구, 제6권, 제 1호, pp. 395-421.
- 배병렬 (2007). Amos 17.0 구조방정식모델링(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사법법무연수원(2011). 범죄백서.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2권 제 4호, pp.1147-1168.
- 신현기·이상열(2006). 우리나라 성폭력범죄의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6권, 제1호, pp. 249-274.
- 이명신·양난미(2011). 남성경찰관의 성폭력 수사행동(적극적 수사와 이차폭력) 결정요인: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63권, 제1호, pp. 159-185.
- 이명신·이계민(2009).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에 대한 전문가의견 조사: 경남지역 의사의 성폭력에 대한 태도, 진료실태와 의료지원 필요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1호, pp. 263-291.
- 이재희(2008). 2차적 성폭력의 발생과 피해정도: 부산성폭력상담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장미정·조은경(2004).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2차 피해 유발 질문의 사용과 수사관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강간통념과의 관계. 한국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동계학술대회,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 129-147.
- 조국(2002).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방안, 형사

- 정책, 제14권, 제2호, pp. 185-210.
- 조호대(2004). 한국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회보, 제 8호, pp. 247-270.
- 황정익(2007). 범죄피해자보호와 경찰활동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8호, pp. 406-434.
- 황현락(2007).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여성인권 보호방안, 한국법정책 학회: 법과정책연구, 제7권, 제2호, pp. 375-406.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3, pp. 411-23.
- Barnett, O., Miller-Perrin, C. L. & Perrin, R. D. (2005). *Family Violence across the Life Span*, 2nd ed. Sage Publications.
- Bove, G. D. & Stermac, L. (2002). Psychological Evidence in Sexual Assault Court Cases: The Use of Expert Testimony and Third-Party Records by Trial Court Judges, in (eds.) James F. Hodgson & Debra S. Kelley, *Sexual Violence: Policies, Practices, and Challenges in U.S. & Canada*, CT: Library of Congress Catalogue-in-Publication Data, pp. 119-134.
- Campbell, R. (2006). Rape Survivors' Experiences with the Legal and Medical Systems: Do Rape Victim Advocates Make a Difference? *Violence Against Women*, Vol. 12, No. 1, pp. 30-45.
- Campbell, R. & Raja, S.(2005). The Sexual Assault and Secondary Victimization of Female Veterans: Help-Seeking Experiences with Military and Civilian Social System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Vol. 29, pp. 97-106.
- Chen, Y. & Ullman, S. E.(2010). Women's Reporting of Sexual and Physical Assaults to Police in the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Violence Against Women*, Vol. 16, No. 3, pp. 262-297.
- Cheung, M. & Boutte-Queen, N. M.(2000). Emotional Responses to

- Child Sexual Abuse: A Comparison Between Police and Social Workers in Hong Kong, *Child Abuse & Neglect*, Vol. 24, No. 12, pp. 1613-1621.
- Cole, J. & Logan, T.K.(2010). Interprofessional Collaboration on Sexual Assault Response Teams(SART): The Role of Victim Alcohol Use and a Partner Perpetrator,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No. 2, pp. 336-357.
- Cook, S. L., Gidycz, C. A., Koss, M. P., Murphy, M.(2011). Emerging Issues in the Measurement of Rape Victimization, *Violence against Women*, Vol. 17, No. 2, pp. 201-218.
- Du Mont, J. & Myhr, T. L. (2000). So Few Convictions: The Role of Client-Related ,Characteristics in the Legal Processing of Sexual Assaults, *Violence against Women*, Vol. 6, No. 10, pp. 1109-1136.
- Du Mont, J. & Miller, K-L., & Myhr, T. L.(2003). The Role of "Real Rape" and "Real Victim" Stereotypes in the Police Reporting Practices of Sexually Assaulted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Vol. 9, No. 4, pp. 466-486.
- Frese, B., Moya, M., & Megias, J. L.(2004). Social Perception of Rape: How Rape Myth Acceptance Modulates the Influence of Situational Facto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19, No. 2, pp. 143-161.
- Hickman. J. & Simpson, S. S.(2003). Fair Treatment or Preferred Outcome? The Impact of Police Behavior on Victim Reports of Domestic Violence Incidents, *Law & Society Review*, Vol. 37, No. 3, pp. 607-633.
- Hodgson, J. F. (2002). Policing Sexual Violence: A Case Study of Jane Doe v. the Metropolitan Toronto Police," in (eds.) James F. Hodgson & Debra S. Kelley, *Sexual Violence: Policies, Practices, and Challenges in U.S. & Canada*, CT: Library of

- Congress Catalogue-in-Publication Data, pp. 173-189.
- Jordan, J. (2008). Perfect Victims, Perfect Policing? Improving Rape Complainants' Experiences of Police Investigations, *Public Administration*, Vol. 86, No. 3, pp. 699-719.
- Kaukinen, C. and DeMaris, A.(2009). Sexual Assault and Current Mental Health: The Role of Help-Seeking and Police Response, *Violence Against Women*, Vol. 15, No. 11, pp. 1331-1357.
- Lea, S. J.(2007). A Discursive Investigation into Victim Responsibility in Rape, *Feminism & Psychology*, Vol. 17, pp. 495-514.
- Lord, V. B. & Rassel, G. (2002). "Law Enforcement's Response to Sexual Assault: A Comparative Study of Nine Counties in North Carolina," in (eds.) James F. Hodgson & Debra S. Kelley, *Sexual Violence: Policies, Practices, and Challenges in U.S. & Canada*, CT: Library of Congress Catalogue-in-Publication Data, pp. 155-172.
- Maguire, E. R. (2009). Polic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Child Sexual Abuse Case Attrition,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Vol. 32, No. 1, pp. 157-179.
- Maier, S. L.(2008). I Have Heard Horrible Stories.: Rape Victim Advocates' Perceptions of the Revictimization of Rape Victims by the Police and Medical System, *Violence Against Women*, Vol. 14, No. 7, pp. 786-808.
- Renner, K. E.(2002). "Reconceptualizing Sexual Assault from an Intractable Social Problem to a Manageable Process of Social Change,"in (eds.) James F. Hodgson & Debra S. Kelley, *Sexual Violence: Policies, Practices, and Challenges in U.S. & Canada*, CT: Library of Congress Catalogue-in-Publication Data, pp. 135-153.
- Sedlak, A. J., Doueck, H. J., Lyons, P., Wells, S. J., Schultz, D., & Gragg, F. (2005). Child Maltreatment and the Justice System:

Predictors of Court Involvement,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Vol. 15, No. 5, pp. 389-403.

Wasco, S. M.(2003). Conceptualizing the Harm done by Rape: Applications of Trauma Theory to Experiences of Sexual Assault, *Trauma, Violence & Abuse*, Vol. 4, pp. 309-322.

Abstract

Secondary Victimization Process in Police Investigation of the Sexually Assaulted Victims: Based on the Data Collected from the Male Police Officers

Lee Myung-Shin* · Yang Nan-Mee**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secondary victimization process in police investigation of the sexually assaulted victims. For this purpose, a hypothetical model which explains the relationships among 3 attitudinal variables(prejudice against sexual assault, victim-blaming attitude, doubt on the victim's report), 2 investigation difficulty variables(difficulty due to lack of motive, and due to lack of evidence), and 3 investigative behaviors causing the secondary victimization(IBSV), by taking account of the importance of extra-evidence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victim's consent/or resistance, situational factors, and victim characteristics) was developed. Using the data collected from 182 male police officers in 3 cities in Gyeongnam, who had investigated the sexual violence crime, the model was tested by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of frequency analysis showed: ①Prejudice against sexual assault and doubt on victim's report were low, but victim-blaming attitude was relatively high. ②Difficulty due to lack of evidence was higher than difficulty due to lack of motive. ③Among IBSV, the IBSV of victim's consent/or resistance was higher than those of situational

* Professor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wellee@gun.ac.kr

** Associate professo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behelper@gun.ac.kr

factors and victim characteristics.

As a resul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followings were found: ① Prejudice against sexual assault increased victim-blaming and doubt on the victim's report; ② Victim-blaming increased IBSV of victim's consent/or resistance; ③ Doubt on the victim's report increased the difficulty due to lack of motive, and IBSV of situational factors; ④ Difficulty due to lack of motive increased difficulty due to lack of evidence; ⑤ Difficulty due to lack of motive increased IBSV of situational factors, while difficulty due to lack of evidence increased IBSV of victim's consent/or resistance; ⑥ IBSV of victim's consent/or resistance increased IBSV of situational factors, while decreased IBSV of the victim characteristics; ⑦ IBSV of situational factors increased IBSV of victim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findings, ① consciousness raising campaign to reduce the secondary victimization among the police officers, ② educational program for the police officers, ③ development of the measurement for self-assessment of police officers' investigative behaviors as well as establishment of self-assessing system in police, ④ legislation reform to increase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the sexually assaulted victims, and ⑤ social construction of the female-friendly environments were suggested as a way to prevent the secondary victimization in the police investigation as well as to protect the human right of the sexually assaulted victims.

Key words: prejudice against sexual assault, victim-blaming, doubt on the victim's report, lack of motive, lack of evidence, investigative behavior causing secondary victimization(victim's consent/or resistance, situational factors, victim characteristics)

